

한국 교육의 부조리 현상에 대한 윤리적 분석

An Ethical Analysis of Educational Corruption in Korea

이 명 준 (Lee Myung Joon)*

논 문 요 약

교육의 부조리는 사회의 다른 부조리와 마찬가지로 일탈된 사회현상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 부조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일반적 부조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한국 교육 부조리 현상을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교육 부조리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부조리의 원인, 유형 및 문제점을 촌지, 입시제도, 대학의 부조리와 관련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그 윤리적 의미를 밝힌다.

I. 서 론

교육의 부조리는 사회의 다른 부조리와 마찬가지로 일탈된 사회 현상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부조리의 한 부분에 학생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일반적 부조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 교육의 부조리 현상을 윤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일반적인 관점에서 교육 부조리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부조리의 원인을 역사적·사회적 관점에서 찾아본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부조리의 양상을 촌지, 입시제도, 대학의 부조리와 관련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行·博)

마지막으로 교육 부조리가 윤리적 개념인 절제, 지혜, 정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본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밝힌다.

II. 교육 부조리의 정의 및 특징

1. 교육 부조리의 정의

부조리 또는 부패는 물리적으로 보면 사물이 요소들의 분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상태가 파괴 또는 붕괴되는 것이다. 윤리적 혹은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삶의 가치나 태도가 비정상적으로 변하여 도덕적으로 와해내지는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부조리 혹은 부패는 원래의 온전한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일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족이나 일탈 현상이 정치에서 일어나면 정치 부조리가 되고, 교육에서 일어나면 교육 부조리가 되고, 경제에서 일어나면 경제 부조리가 된다.

산업화 이후 학교 교육이 보편화 되는 가운데서 교육은 점차 중요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교육은 현대의 모든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서는 교육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과거의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넘어서는 지식과 정보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식·정보 중심 사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과거의 사회에서 보다 더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을 개인의 생존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최상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교육이 국가 발전의 가장 믿을만한 수단으로 간주되면 될수록 교육의 중요성과 공공성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이 더해지면 질수록 교육의 부조리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증대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의 권한이 증대되고 그로 인하여 교육이 오용될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이 지식과 정보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서 적절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의 부조리 현상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부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급자들이 교육 기관이나 제도의 대행자(agent)로서 교육을 실행하는 권한을 갖는 주체로서 간주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교육 부조리는 대행자인 교육자들이 가진 권위나 권력을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오용 또는 남용해서 일어난다 (Abueva, 1970).

다른 하나는 교사를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중의 하나로 간주할 때이다. 이 경우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급자들이 교육이 인간을 양성하는 것

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교사라는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수입이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해서 부패가 일어나게 된다(Klaveren, 1970). 달리 말하면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일탈된 행위를 하는 것이 교육의 부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부조리의 특징

교육은 학생, 교사, 교장 및 교육관련 행정가, 학교 운영자, 학부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 올바른 교육은 학생·교사·학부모 삼자의 조화로운 협조와 더불어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잘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이상적 교육은 이 삼자의 조화 속에서 학생의 능력을 신체적, 지적, 도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상적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세 요소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이루어진다. 교육의 한 축을 구성하는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전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열과 성을 가진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의 다른 한 축은 학생들이다. 아무리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학생들이 배움에 뜻이 없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참된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교육의 또 다른 한 축은 학부모이다. 학생과 교사가 교육의 장에서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도 부모의 협조가 없이는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이상적 화합을 통한 바람직한 교육적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지원 없이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민감하고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배움에 전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세가지 요소가 제각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역할이 교육에서 중요한 만큼 교육이 잘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이들의 협력관계가 조화로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이들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육의 일탈 현상, 즉 교육 부조리가 일어나게 된다. 교육 부조리는 초·중·고·대학 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서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부조리는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교육 부조리는 여타의 사회적 부조리와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교육 부조리는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학생이 교사에게 또는 교사가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부당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데서 주로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학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둘째, 교육의 부조리는 직접적으로 관계된 당사자들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부조리에 의해서 빚어지는 결과는 학부모에게 간접적이고 교사에게는 직접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의 부조리는 당사자간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윤리적 타락으로 그치지만 교육의 부조리는 그에 더하여 학부모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학생들 자신의 윤리적 타락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부조리가 그들에게 윤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단순한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난다.¹⁾ 이들 원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면, 교육제도, 그와 관련된 교육 행정체계, 사회의 관행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내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의식이나 사고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이 두 원인은 내부의 다양한 변인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명쾌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다만 형식적으로만 구별될 수 있을 뿐이다.

Ⅲ. 교육 부조리의 원인과 유형

1. 부조리의 역사적·사회적 원인

일반적으로 부조리는 사회 구조, 관행, 사고 습관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 특히 교육의 부조리는 사회 제도, 교육 제도, 사고 방식, 사회 문화적 관습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관련된 제도는 구조적 측면에서 교육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교육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조장하여 부조리를 낳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교육의 문제가 되고 있는 입학시험이 그것이다. 한국의 입학시험과 관련된 교육열과 부조리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원인은 그 근원이 깊다. 교육 제도로부터 빚어진 빛난 교육열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조리는 현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전통에서도 찾아 질 수 있을 만큼 뿌리 깊은 것이다. 고려시대 이래로 시행되어 온 과거 시험과 조선시대에 국시로 인정된 유교에 뿌리를 둔 승문주의, 이기적인 가문 승배주의 또는 가족주의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교육열을 부추겼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입시제도 이상으로 경쟁이 치열한 과거로 인하여 폐해가 심각하였다.

조선시대의 사회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당시의 과거시험은 사회에서 입신양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당시는 오늘날처럼 상업, 제조업, 서비스 업종과 같은 다양한 일자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신분제 시대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과거시험은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에서 출세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 제도적으로 과거시험이 유일한 사회진출의 효과적 관문이었었고, 그 이유로 사람들은 과거에 합격

1) 교육 부조리의 원인에는 크게 나누어 보면 내·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대학 입학 시험 이상의 열기를 가지고 시험공부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과거와 관련된 여러가지 부조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²⁾ 왜냐하면 당시의 과거제도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명예·권력·부를 한번에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과거 시험이라는 극심한 경쟁적 교육제도가 가져온 역사적이면서도 출세 지향적 교육열은 해방 후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유사한 양상을 띄고 학교 교육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먼저 해방 후 높은 교육열의 한가지 원인은 신분제의 해체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후의 민주정치 제도의 채택은 이미 붕괴되고 있던 신분제도에 가속을 더하여 급속하게 해체 시켰다. 따라서 기존의 소위 기득권 층으로 분류되던 사회의 상위권 세력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신분상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인정하는 일정한 학력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이런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서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 2세 교육에 필요 이상의 높은 관심을 가졌다. 반면에 기득권이 없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 상황에서 경제·사회적 기득권을 얻으려는 수단으로서 교육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수단을 얻기 위한 열망으로 높은 교육열을 갖게 되었다. 물론 높은 교육열은, 모든 현상이 그렇듯이, 긍정과 부정

2)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명예, 권력, 부를 한번에 누렸다는 것은 역사 통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과거 시험과 관련된 부패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공도의 한 가닥 명백은 오직 과거에 있었는데, 근래 과장이 엄하지 못하여 법금을 여기고 기강을 무시하니 몹시 한심합니다. 사관은 으레 과거에 앞서 녹명한 응시자의 숫자를 계산하여 장소를 나누고 뚜렷이 상회할 사람이 있지 않으면 또한 임시하여 녹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그 일을 중히 여기고 부정을 막으려는 의도에서인 것입니다.

지난 경자년에 분소의 다과가 갈지 않음으로써 사관이 죄를 입고 과장을 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입문자의 녹명을 일체 밝히지 않기로 법을 세웠는데, 지금 이 문과 별시 이소에는 7백여 인을 분송하였는데 과장에 들어가 성편한 것은 9백여 건에 이릅니다. 정수 외에 침묵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니, 사관이 국법을 무시하고 사정을 쓴 작태가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이를 다스리지 않으면 뒷날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니 이소의 입문권을 잡아다 정죄하여 과거의 사체를 엄히 하소서. 또 사습이 좋지 못하여 응시할 때 거취를 임의로 하여 저곳에 녹명하고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미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법에 응당 피해야 할 사람 외에 옮겨 녹명하여 참방한 자가 있으면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삭제시킴으로써 뒷날 폐단을 막게 하소서. 과거를 칠 때 역서를 하는 뜻은 부정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부터 해조가 글씨에 능한 사람을 별록하여 시소에 이문하면 차비간이 전담하여 등서하게 하는 것이 곧 옛 규례입니다. 지금 이 문과 이소의 차비관은 감히 해조의 이문에 이름이 없는 자를 과장에 데리고 들어가 절친한 응시자의 시권을 쓰게 하되 그것도 좋은 종이를 택하여 해조로 써서 들었으므로 남들이 보기에 여느사람 것보다 크게 달라 현저히 사정을 둔 자취가 있어 매우 경악스러우니 차비관을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현장에서 잡힌 능서인 또한 해조로 하여금 율에 의하여 정죄하게 하소서. 근래 관작이 외람되어 쌓은 공로와 현저한 업적도 없이 서열과 품계를 뛰어 넘는 것이 한이 없으므로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관으로서 파산에 있던 사람이라고 복직할 경우에는 으레 한 자급을 승격시키니, 어떻게 태만한 자를 격려하여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가 온당치 못함이 이보다 더 극심할 수 없습니다. 익산 군수 홍유는 특별한 명망도 없고 이력도 충분하지 못한데 갑자기 4품직에 승급되었으므로 물의가 몹시 온당치 못하게 생각합니다. 체차시키소서.”

여기서 보듯이 현대의 대학 입시의 부정이나 그 외의 시험과 관련된 부패의 한 전형을 이미 조선시대에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패의 양상은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가 과거에 합격한 이들에게 명예, 권력, 부 등과 같은 것들을 일시에 모두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과거 시험이 모든 사람의 열정적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거 시험의 전통이 역사적으로 한국의 교육열을 높은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빛난 교육열의 전형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38년(병신)).

의 양면성을 갖는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교육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희망의 시기였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사회의 기존의 질서가 외세, 즉 처음에는 일제에 의해서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미국에 의해서 부과된 자본주의적 자유 민주주의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가치관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던 혼란의 시기였다.

그리고 이런 혼란은 사회 제도와 교육 제도의 혼란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교육의 부조리를 조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후의 사회는 전반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저마다 신분의 상승, 경제적 부의 축적, 명예의 획득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사회와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식은 부모인 자신들이 뒷바라지만 잘하면 무조건 일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맹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풍토로부터 빚나간 교육열 및 그와 관련된 부조리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부조리를 조장하는 사회적 원인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는 교사의 경제적 사회적 대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교사에 대한 처우와 보수 수준의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교사들은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유혹에 취약하게 된다. 이런 조건들을 살펴보면, 타직종에 대비한 보수 수준의 상대적 저하, 교사의 전문성에 상응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보수규정, 각종 직급수당 지급 미흡,³⁾ 봉급 체계의 불합리성,⁴⁾ 교육권 보장 미흡,⁵⁾ 교사의 정치 활동의 제한, 교직 단체의 역할 미흡(전국 교직원 노동조합(1998), 교육개혁 정책 대안)⁶⁾, 신분 보장의 불확실성⁷⁾ 등이다. 이에 덧붙여서 문제를 악화시킨 다른 요소는 교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미흡할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우대라도 있어야 하는데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봉급이 적은 만큼이나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경제적 유혹이나 부조리에서 남보다 자유롭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교육부조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한종하 외, 1994).

3) 담임 수당 미지급, 대학 교원에 대한 교직 수당 미지급, 초등 교원 보전 수당의 원래 의의 상실, 교장임기제 적용 교장의 명예 퇴직 수당 지급 제외, 장기 근속 수당의 타공무원과의 차등 지급, 교감의 정보비 미지급, 상위 학위 취득자의 보상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4) 호봉 체계의 불합리, 근속 가호봉제의 불합리, 호봉간 낮은 승급액, 승급 기간의 장기화, 승급 회수의 제한, 사법제 중간 학력에 따른 가산연수 불인정, 대학 교원의 단일 호봉제 미정착, 교원의 호급 배치가 우대 정신에 미부합, 교육장 및 14호봉 이상의 초중등 교사를 확립적으로 일반직 서기관 내지 사무관 호급과 같이 취급 등을 들 수 있다.

5) 교육권 침해 사례 증가, 현행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교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 미흡, 교육행위의 자율성 보장 미흡 등이다.

6) 교원 징계 및 재심 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 참여 결실, 교직단체조직의 비전문화, 교섭 모델 부재, 교원 노조의 미해결 등이다.

7) 교원의 신분보장 문제는 사학재단에 매우 심각하다. 사학 교원의 신분 보장 불확실, 사학 교원 신분 보장 정년에 관한 법칙 규정 미비 등이다.

2. 부조리의 유형

(1) 촌지와 관련된 교육의 부조리

촌지가 문제된 것은 언제나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물론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촌지는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배움을 풍부하게 만든 것에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자아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에 감사하는 소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촌지의 참뜻은 언제부터인가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촌지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뇌물적 성격을 띤 촌지가 등장하였고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⁸⁾.

학부모와 교사간에 주고받는 촌지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기보다는 관례화 되고 그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촌지를 주는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줄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그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촌지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촌지는 학부모는 물론이고 아이들 사이에서조차 위화감을 일으킨다.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은 편애를 받고 자신은 부당한 대우나 미움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직관적 능력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좌절과 분노로 마음이 일그러지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이다.

8) 촌지와 관련된 교사들의 비교육적 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한 촌지는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촌지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비형식적으로 면담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언론과 정치권이 지나치게 촌지 문제를 기사화, 정치화하고 있는데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촌지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을 언론에서처럼 일과성으로 요란하게 다루지 말고 행정 당국에서 꾸준히 조사를 하고 부당한 촌지를 요구했거나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수의 부정한 교사들 때문에 박봉에 시달리면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교사 전체를 한꺼번에 부정을 범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정당하지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끼몰이 식으로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 교사집단 전체를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보는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칫하면 그나마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에게 교직에 대한 좌절감과 회의를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좌절감과 회의는 결국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전달될 것이고 그것은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교사들의 심리적 위축은 지식전달 못지 않게 중요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데 부정적 제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의 학부모, 사회, 국가의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심각한 교육의 타락현상이 될 것이다.

촌지를 포함한 교육의 부조리가 다른 어느 부조리보다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간접성에서 찾아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촌지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어린 학생들을 다루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부당한 대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할 어린 초등학교생들을 그들의 능력밖에 있는 촌지의 유무나 과다에 따라서 교육 현장을 주관하고 있는 교사가 편애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교육 부조리는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홀쏬한 교사’가 되기 위해 일부러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가져오라고 해야 할 판이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한 관계자, 11일 촌지를 거절하는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인사에서 우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한다 (동아일보, 1998, 6월 12일, 한국 교육신문, 1998년 6월 15일).

학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촌지를 갖다 줄 만큼 생활이 여유가 있을지라도 양식있는 학부모들은 촌지를 건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촌지에 의해서 자기의 자식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교사의 관심과 돌봄을 받는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은 다른 학부모들이 촌지를 갖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무리해서 촌지를 갖다 주거나 주려고 하게 된다. 어느 경우이든 학부모에게 이런 부담은 이중적이다. 하나는 촌지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심리적 부담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넉넉하지 못한 가계 재정에서 촌지로 지출을 하자니 부담스럽고 모른 채 하면 지출은 줄지만 실질적으로 불안한 진퇴양난의 모순에 빠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좌절하게 된다. 심리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촌지는 학교 생활에서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학생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모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믿는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들에게 과도한 촌지를 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자식의 학교 활동을 통해서 받으려고 한다. 자신의 아이가 학급의 반장이 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보상 심리에 의해서 촌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경우는 극히 소수이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학부모의 이런 촌지 전달 행위는 자식을 위한다는 의미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교사에게 촌지에 대한 기대 심리를 심어주고 학생의 윤리적 의식의 발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달리 말하면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촌지 행위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촌지를 선호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촌지는 그들의 경제적 물질적 생활에 보탬을 주고 학급의 운영을 쉽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촌지를 바라지 않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올바른 인간을 양성한다는 자부심과 국가의 동량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교육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촌지를 의도적으로 바라는 교사들은 소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육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의 파장은 크다.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교사들이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학생들을 불모로 하여 촌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촌지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촌지에 대한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도 고발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식에게 부정적 결과로 돌아간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방법은 다양하다. 타락한 교사들은 촌지, 찬조금 등을 받기 위하여 학생들에 대한 간접적 표현, 편애, 수업 시간의 발표회 박탈 등의 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체벌까지도 촌지나 찬조금 등과 관련해서 가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⁹⁾ 이런

9) 학부모들이 촌지와 관련해서 관련 민간 단체에 접수한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촌지나 찬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이가 산만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신경 좀 쓰시죠”, “(전화로) 학교에 한

과다한 촌지 문화가 낳는 폐해가 올바른 교육을 왜곡하고 올바른 인간을 양성하는 인성교육을 저해한다. 그리고 자라나는 2세를 위한 올바른 교육과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가장 윤리적으로 건전해야 한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국민들은 분노한다. 학교에서 자식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부모의 자식 사랑을 돈으로 표현해야 하는 사회 현실에 좌절하고 체념하기도 한다.

촌지 문제가 심각한 교육 부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교육행정 당국의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대응 요법에 치우쳐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롭지 않은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촌지 문제의 저변에 놓인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증상에 대한 대중적 치료에 우리 사회가 급급하기 때문이다.

(2) 입시와 관련된 교육의 부조리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의 사회 제도는 교육의 부조리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각종 교육적 부조리를 조장한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인간적으로 역할을 하고,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이제 진부한 일이 되었다. 실력보다는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의 관행과 제도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은 사회에서 바람직한 혹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의식으로 팽배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학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시라는 교육 제도는

번 오시죠 오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해 달라는 소리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 “자식만 똑똑하고 엄마는 무능하다”는 식으로 간접적 표현을 해서 학부모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선생님이 촌지에 대해서 눈치를 주어서 30만원을 갖다 주었는데 원하는 액수가 아니어서 그런지 계속 아이에게 좋지 않게 대한다”, “(강남의 모 초등학교 1년 학부모) 교사가 촌지하는 부모의 아이와 하지 않는 부모의 아이를 노골적으로 차별한다. 촌지하지 않는 부모에겐 물건을 요구한다. 20만원 상당의 찻잔 요구 등. 96년에 어떤 학부모에게는 냉장고를 사오도록 요구했다. 그 학부모가 국산 냉장고를 사다 주자 캘러리아 백화점에서 외제 냉장고로 사오라고 다시 요구했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에게 10만원 짜리 슬리퍼를 요구했다. 이 교사는 대통령상을 2회나 받은 교사이다”, “(강동의 모 초등학교) 96년 1학년 ○반 교사는 전화로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심지어 60만원 정도의 오디오를 요구했다. 이 학부모가 강동 교육구청에 항의 전화했으나 호지부지 되었다”, “(광명시 모 초등학교) 특정학교 ‘완전수학’을 일괄 구입토록 했다. EBS 영어교재도 일괄 구입했다. 1만원 짜리 일기장도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학부모들에게 교사 회식, 석유 난로 설치, 냉 온수기 설치 등 요구했다”, “(개포동 모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본인 생일이라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모 사립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1학년 때 총 100만원을 담임 선생님에게 주었다(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50만원, 4회 30만원). 담임 선생님이 ‘많은 돈은 통장으로 부치라고’ 요구했다. 4학년에 다시 1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이 되어서 다시 20만원을 가지고 찾아갔으나 너무 늦게 찾아왔으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학부모를 무안하게 했다. 이 학급의 엄마들은 매일 어항 청소에 호출되며 선생님 커피를 제공한다”. “(평촌 모 고등학교 2학년) 태권도부에 들어갔는데 촌지를 갖다 주면 시험에 출전시키고 안 주면 출전도 잘 안시켜 준다. 태권도부에 들어가는 명목으로 수백만원 씩 받는다. 학부모들이 촌지문제를 거론하면 태권도부 선생님은 ‘자기는 그만 두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학생은 서약서대로 퇴학당한다’고 협박했다. 교장은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강남 모 고등학교) 한 반에 13명의 엄마들이 매달 100,000원 씩 건여담임 선생님에게 주고 있다. 다른 반도 모두 같은 실정이다. 교장, 교감은 은근히 묵인한다”, “(강남 모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10~15명을 모아 100만원 맞추어 거두라고 지시했다. 임원이 아니라고 10만원 기본으로 찬조금 징수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최근의 교육비리에서 드러난 촌지, 체벌, 부당한찬조금에 관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입장”, 1997. 7. 9)

필요악이 되었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독일은 아비투어라는 시험을 본다. 이들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는 여러 차례의 입시제도의 변화를 겪어서 현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나 독일의 자격 시험과는 달리 대학 입학에 필요한 능력의 유무를 묻는 시험일 뿐이다.¹⁰⁾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후에도 학생들의 대학 선택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 일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유연성 없는 제도가 교육의 부조리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¹¹⁾ 이처럼 교육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는 잘못된 사회제도와 교육제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영기업,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대학 졸업장이다.¹²⁾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 없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쩌다 개인이 대

10) 해방 이후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 제도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1945~1951, 대학별 단독 시험제, (2) 1954,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제, (3) 1955~1961, 대학별 단독 고사제, (4) 1962~1963, 대학입학자격 국가 고사제, (5) 1961~1968, 대학별 단독 입시제, (6) 1968~1980, 대학 입학 예비 고사제, (7) 1981~1993, 대학입학 학력고사에 의한 선발, (8) 1994~ 현재, 대학 수학능력 고사제 등으로 변천하여 왔다.

11) 참고로 영국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본 후에 5개 대학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으며, 중국은 10개 대학에, 미국은 한 학기 동안 거의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일본도 1개월 동안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도 이제는 대학 선택의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대학별로 전형일자를 달리하고 여러 대학들이 하나의 군을 형성하여 학생들에게 최고 일곱 차례의 지원 기회를 주며 특차 전형기간은 35일로 늘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선발을 획일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고등학교 학생부의 기록을 내신성적으로 반영하거나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98학년도에는 물론이고 99학년도 수능시험이 정상적 고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출제될 것임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나친 수험 준비의 부담, 과외를 포함한 사교육비 부담 등을 줄이는 것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부조리를 방지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다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의 비중을 높여서 특차 학생들을 뽑는 비율을 소위 상위권 대학들이 높이려는 경향을(서울대 16.4%, 고려대 39.7%, 연세대 41.4%, 대학전체의 비율은 모집정원의 30.3%: 동아일보, 98년 5월 15일, 서울대의 경우를 보면 특차 전형의 총점이 500점 만점이고, 점수 반영 비율은 수능(400점), 학생부의 교과 성적(80점), 출석점수(10점), 봉사 및 행동 발달 상황(10점)이다. 대학 입학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음: 동아일보, 98년 3월 19일, 5월 16일, 중앙일보 98년 5월 1일) 보이는데 이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큰 비중을 두고 선발을 할 경우 상위권 몇 개의 대학이 대학입학수능성적 우수자를 휩쓸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대학 입학에서 과거와 같이 시험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회귀할 수도 있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음을 함축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의한 대입 특차 전형은 결과적으로 입학전형의 다양화가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처럼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들도 과외를 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높여서 특차를 통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 경우에 다시 예전처럼 농촌보다는 도시, 도시중에서도 몇몇 대도시의 학생들이 과외를 통해서 고득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학 입시 제도가 갖는 공평성을 잃고 시험 성적만을 높이려는 교육의 부조리로 인하여 사교육이라는 교육적 병폐가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특차전형으로 대학입시를 다양화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도 어긋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을 선발하려면 수능시험 성적보다는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학력저하 고용(under employment)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학 졸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입사 이후에 받는 봉급이나 진급 시에 당하는 여러 가지 차별 대우에 관한 많은 뒷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로 하여금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거의 모든 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학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대학에 가려고 한다. 이런 학력 중시의 사회제도가 만든 지나친 대학진학의 열망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져왔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1945년 해방 이후에 국가의 재정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국민교육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정부나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거의 자력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 자식의 교육을 위한 이와 같이 높은 교육열은 1960년대 이후에 시작한 경제 개발과 더불어, 짧은 기간에 근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런 높은 교육열이 오늘날 우리의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교육열의 긍정적 측면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학부모들이 자식을 보다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려는 지나친 교육열은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부조리 현상을 초래하였다. 소수의 학부모는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과외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부정으로 입학시킬 기회를 찾는 빗나간 교육열을 낳게 되었다. 이런 부조리 현상은 자식 진학에 지나친 열망을 갖는 학부모와 그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취하려는 학내·외의 관련자들로 인하여 빚어지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근원적으로 실력보다는 학력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학력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사회 제도와 관행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송태희, 1997).¹³⁾

이처럼 지나친 과외나 입시부정과 같은 빗나간 교육열의 또 다른 원인은 교육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현상, 즉 교육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비교육적 현상에서 비롯된다. 인격적으로 온전한 인간을 양성해야 할 교육에서 교육 담당자들과나 관련자들이 일으키는 이런 가치 전도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부분적으로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과 잘못된 사회 제도에서 찾아질 수 있다.

대학 입시가 가져온 폐해 중의 하나는 공교육, 즉 학교 교육의 부실화와 불신의 심화이다(송태희, 1997)¹⁴⁾. 대학 입시의 경쟁률이 높고 이로 인해서 대학 진학이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들

13) 대졸 이상의 임금이 고졸에 비해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 80년대 초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50% 정도의 차이를 보여 학력간 임금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경제적 혜택 이외에 명예, 존경 등 각종 사회적 혜택이 고학력자에게 많이 부여된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대학을 나와야 결혼을 잘 할 수 있다는 관념이 고학력화 경향과 입시과열, 과잉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14) 교육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교육의 부조리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입 수능시험은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 교육과의 괴리로 인해 공교육 공동화 및 입시관련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대입 수능시험이 통합적이고 탈 교과적으로 출제되는 데 비해 일선학교 교육은 단일 교과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학 입학 수능시험에 대비하여 가르치기 힘들다. 97학년도 수능시험까지는 어렵게 출제되어 상위권 학생들은 무한 경쟁을 중

은 학교 교육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가계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자식들에게 과외를 받도록 한다(김영철, 1997). 한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84.9%가 상급학교 진학 및 입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경감 방안), 다른 조사는 주지교과(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의 과외는 실력이 모자라는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서(81.5%)였고, 예·체능분야의 과외는 특기를 개발하기 위해서(63.2%)였다(임연기, 1997).

과외를 하는 이유를 학교급 별로 보면 중·고등 학교에서는 1980년대에 진학을 위해서(82%)였고, 90년대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실력보충(72.7%)과 대학 진학을 위해서(11.2%)로 나타났다(김영철 외, 1997). 실력보충과 대학 진학은 대학 입시 관점에서 보면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왜 학부모들이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의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과외를 받는가 하는 것이다. 위의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나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교육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인 과외에 의존하게 된다.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대학 입학시험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가계와 가정의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단체의 조사 결과 과열 과외는 가정이나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과외비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외비의 과중한 부담이 사회의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외비의 과중한 부담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라는 의견에 82.1%의 주부가 공감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지나친 과외비 부담은 가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돈의 유혹으로부터 초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과외비 마련방법은 생활비를 줄여서가 88.8%이고, 부업이 8.0%이고, 저축한 돈에서가 2.3%이고, 집을 줄이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또는 빚을 내서가 0.3% 이다(박태일, 1997). 여기서 보듯이 이미 과외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서민의 생활에 주름을 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3) 대학과 관련된 교육의 부조리

해방 후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의 상당 부분은 대학 입시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탐색과정의 산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교육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 교육보다 파행적 교육이 일상화된 예가 우리의 대학입학 위주의 입시 교육이다. 대학 입학이 이처럼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위권 학생들까지도 이 영향을 받아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98학년도에는 비교적 대학입학수능시험이 쉽게 출제돼서 바라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진다. 교육과정상의 문제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목과 내용의 영역 수가 너무 많아 학교에서 피상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과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교 수업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공통과목 수가 2배 가까워서 학생의 선택의 폭이 좁고 학습부담은 많다. 그리고 잦은 시험으로 학습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이처럼 교육 제도와 교육 과정 상의 결함으로 사교육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이에 비례해서 공교육은 부실화하고 있다.

다른 문제는 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정 입학, 부정 편입학 등이 있다. 그리고 국·공립 대학의 운영 주체와 사립 대학 설립자들이나 그 운영권자들이 대학의 교수 요원을 선발하는데 연루된 비리 등도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 제도와 대학 입학 제도의 결함, 그리고 잘못된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져온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초·중·고등학교의 부조리가 학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하여 대학의 입학, 편입학 부정은 성인인 학생을 사이에 두고 빚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족벌체제에 의해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대학 내의 갖가지 비리, 교수 임용시에 성인인 교수와 교수 지원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내일신문, 1998).¹⁵⁾

이처럼 대학 편입학에서 드러난 비리는 대학 운영자들이 얼마나 부조리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¹⁶⁾ 이미 드러난 대학 운영의 비리, 편입학의 부정 등은 교육제

- 15) 대학의 교수 임용과 관련된 비리 사례는 이제는 상당히 일반화된 이야기들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의 국립 7대학교의 음악과 과장은 7씨, 또 다른 두 7씨가 임용비리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다. 서울의 국립 8대 치대 교수의 임용비리 등이 있다(내일신문, 222호, 1998년 3월 21일). 사학 재단 내부의 불화로 인하여 벌어진 서울의 8외국어대 사건은 사학의 비리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사장과 이사가 학교의 운영 비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이사장이 교육부에 진정을 함으로써 드러난 이 사학 재단의 비리는 사립대학들이 학교의 운영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이사장과 이사는 친인척 관계(이사가 이사장의 친정조카)로 8대학교의 운영은 전근대적 운영의 표본인 족벌체제로 운영되었다. 비리가 공개되자 교수 협의회가 열려 335명 중 233명이 이사장과 이사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교수협의회와 교직원 노조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리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도 재단의 전원 퇴진을 요구하는 찬성투표에 80%의 지지를 보였다(내일신문, 229호, 1998년 4월 2일). 이 외에도 서울의 7대, 8대, 12대, 원주의 8대, 광주 8대, 7예술대, 대구의 8대, 12대 등은 현재 학내 분류로 인하여 상임이사가 파견된 상태이다. 청주의 8대, 8대, 서울의 12대, 8외국어대, 남원의 8대, 경기도 고양시의 8항공대학 등은 기타 분류 대학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중 서울의 7대, 8대, 대구의 12대 등은 족벌체제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대학이다. 설립자 가족이나 친족간의 갈등 관계로 학내 소요가 일어났거나 재단 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된 경우다.
- 다른 경우는 광주 8대, 원주 8대 등이다. 전자는 8 전 총장이 학교운영을 장기간 독점하면서 각종 부정 비리를 저지르고 이것이 학내·외의 불만을 야기해서 분류가 일어났다. 원주 8대의 경우는 93년 9월 전 이사장이 7씨가 부동산 투기와 학내비리로 구속되면서 학내 소요가 일어났다. 96년 4월에 대구의 7대의 학내 분류는 이사회의 총장 선출과 대학 사유화를 둘러싸고 대학 교수 협의회의 강력한 저지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농성으로 분출되었다. 그런데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동년 8월 16일 졸업생 중심의 사조직인 '비사회' 소속 회원들이 교수협의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교수들을 폭행하는 사태로 발전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다(내일신문 232호, 1998년 5월 20일). 이것은 동년 7월에 MBC TV의 'PD 수첩'에도 방송된 바 있다.
- 최근의 교수임용 비리와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교로는 수원 8대, 대구 7대 등이 있다. 8대의 경우는 97년, 98년 교수 신규채용시 전공 적부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행정 등 3개 전공에 지원한 3명을 적격자로 처리하는 등 교원 채용의 전공 적부심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7대의 경우 96-98년도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총장이 인사권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동아일보, 1998년 6월 12일).
- 16) 서울의 8외국어대의 경우는 입학과 관련된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 있다. 96년도 입학시험 답안지 1,450여 매가 없어진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체 지원자의 답안지 중에서 유독 영어과와 불어과의 답안지가 없어졌다. 이 대학의 '교직원 비상대책위원회'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당시 교무처장 8교수와 입학주임 8씨만이 창고열쇠를 관리했다고 밝혀졌다. 관련 행정부처 감사팀은 이와 관련 두 과의 96년도 합격자 134명의 수능점수와 내신성적 등을 비교 검토하는 정밀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편입학 부정은 이미 확인된 것만 4건이고 그 액수는 건당 8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은 2억 7천만원으로 당시 총무처장이던 8 교수의 요청으로 별도의 장부에 기록된 후 재단금고에 보

도가 편입학을 자유로이 허용하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대학의 설립자들이나 운영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우선 하는데서 기인한다. 이들은 마치 대학 운영이 자신들의 개인재산이고 사업인 것처럼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구조상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그 액수가 커지고, 간접 매개이던 학생이 이제는 성인이거나 거의 성인에 이르렀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그리고 학생이 성인이라는 점은 가볍게 보아서 안될 윤리적·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조리의 당사자들이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야기하는 문제는 교육적 환경에서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심각한 부패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입학의 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대학생의 학부모와 대학 당국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직접 당사자인 학생 자신도 어엿한 성인으로서 이것이 윤리적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한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편입학의 이익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학생 본인이 잘 깨닫고 있다는 점에서 외적으로는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부조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 편입학의 과정에서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배우는 학생이 편입학이라는 교육의 부조리를 통해서 오히려 사회의 부조리를 배우게 된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대학 관련자들은 좋은 대학으로 가는 것이 곧 미래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확보한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 모두 눈 앞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도덕적 타락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대학의 편입학의 부조리는 사회의 부조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편입학의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먼저 학교간의 편입학이 제도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어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편입학은 어렵고, 학력은 여전히 중요시되는 사회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좋은 대학으로 갈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고, 그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기에 부조리가 개입할 소지가 있게 된다. 사회의 이런 제도적 모순으로부터 나오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어 입학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과 관련된 편입학을 포함한 각종 부조리와 비리의 배경에는 돈이면 대학교 입학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타락한 자본주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편입학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품 수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고, 대학 관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했다가 B 전무이사와 O 당시 교무부 처장이 8회에 걸쳐 약 6천만원을 남기고 모두 찾아갔다. 이들 4건의 부정방법을 보면 답안지의 필적이 다르거나, 답안지에 찍힌 잉크의 색깔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부정 편입학 지원자들의 답안지를 바꿔치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관련 행정부처의 감사팀은 이외에도 96년, 97년, 98년 편입학 시험 답안지와 신분카드, 면접카드, 중간고사 시험지 등을 대조해서 98년 두 건, 97년 두 건, 96년 세 건 등의 의심이 가는 사제 7건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신문, 98년 4월 29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IV. 교육 부조리에 대한 윤리적 분석

교육은 개인의 발전과 행복, 국가의 발전과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이루고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이 사고의 차이는 교사가 학생을 다루는 태도나 가치의 차이를 가져오고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갖게 한다. 교육 자체는 보편성을 갖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천의 장에서는 사회나 국가보다는 개인(학생,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급자 전부, 학부모) 차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개별성을 갖는다. 이 개인적 개별성이 이상적 교육의 보편성과 조화를 이루면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교육은 파행으로 가고, 부조리 현상이 나타난다.

인간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는 욕구를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다. 따라서 교사나 학부모가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 자체는 당연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구체화 하고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는 교사는 자라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더하여 그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교사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은 사회의 다른 어느 직업보다 윤리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자신의 욕구와 그 성취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교직은 물론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를 자신의 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도구화 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 교육의 본말을 모두 그르치는 심각한 것이고, 그것이 교육 부조리 발생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부 교사가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사리사욕에 어두워 나이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교사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촛지를 요구하거나 원하는 교사는 자신의 욕구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절제력을 잃었음은 물론이고 교육의 신성함을 재물과 바꾸는 천박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성적 절제력을 잃은 교사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인 균형된 마음의 조화를 잃은 것이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절제를 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비리나 부정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촛지를 요구하는 교사의 무절제는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사회나 다른 성인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라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악에 물들게 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간의 지혜가 지식에 비례하여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⁷⁾

17) 인간의 도덕적 이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향상으로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요구되는 지혜의 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삶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일정한 지식도 없이 지혜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

교사가 윤리적 혹은 도덕적 지혜를 갖기 위하여 모두가 어느 영역에서든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식이 발달한 시대에 대학 교육 정도 이상을 받은 교사들이 어떤 특정한 윤리적 지식이 부족해서 생활에 필요한 지혜, 즉 윤리적 판단과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교사들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적 부조리를 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달리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윤리적 지식이 부족해서 부조리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도덕적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지적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 욕구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교사 개인의 부족한 능력과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교사에게 일어난 데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사를 둘러싼 외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교사들의 박봉이나 사회적 처우에 대한 불만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사람들이 지키는 생활 윤리는 필요한 최소한의 외적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교사의 봉급과 진급에 대한 기회의 제한, 교원의 교육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 등으로 교사의 불만은 이미 높아있다. 이에 더하여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교권에 대한 교사의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심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교사에게 건강한 윤리적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윤리적 지혜를 발휘해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도 함께 개선하여야 한다. 이럴 때에만이 교육의 부조리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없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부조리를 다루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다른 한가지는 정의의 관점이다. 개인적·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사는 교육을 통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¹⁸⁾ 교사는 교사의 임무인 가르치고 연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갖고 사익을 취하려고 할 때 그는 교육에 필요하지 않은 촌치요구와 같은 부조리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촌지를 받고 난 후에 교사가 하게 될 공정하지 못한 학사운영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학교 사회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교육부조리는 교사 개인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의 부조리를 조장하여 정의를 뒤흔드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지식을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지혜를 갖는 능력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지식이 많을수록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낫고 그가 그에 상응하는 인성과 실천력을 가졌다면 그의 윤리적 지혜는 남보다 뛰어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18) 플라톤과 루소는 이점에서 선구적인 해안을 가진 철학 사상가들이다. 플라톤은 학생들의 교육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교육을 통해서 개인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루소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부패한 사회가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경고하면서 어려서부터 선한 인간성을 잘 보존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고 사회의 부패에 대한 면역성을 함양한 후에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자의 교육에의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조리가 없는 공정한 기회와 그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매 단계마다 공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내적교육과 외적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부모 나름대로 교육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지나쳐서 정당하지 못한 금품수수를 통해서라도 자식의 학급 간부 만들기, 성적 올리기, 대학의 편입학 등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못된다. 이는 학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학생이 실천하고 지켜야 할 개인적·사회적 정의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부지불식간에 교육 부조리가 되고, 결국은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해서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와 같이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할 때 학생들이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 무엇을 배우기를 바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급자와 학부모의 부정의(不正義)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학생들까지도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에 물들게 하여 부정의한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¹⁹⁾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조리의 대상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는 점에 주의하여 합리성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육 부조리에 대한 위의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육 부조리가 가져오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할 때, 교육의 영향력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 부조

19) 학교 교육은 춘지, 교과서·참고서·문제지 채택, 과외, 사교육, 편·입학, 교복·체육복 선정, 학습 보조 자료, 수학여행, 교사·교수 채용 등과 관련해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부조리로 명들어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부조리가 우리처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곳은 드물다. 오히려 이런 부조리는 제도적 요소와 아울러 인간적 요소, 사회적, 문화적 요소의 복합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교육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적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교육 문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학 입시 및 편입 제도의 획기적 개혁을 필요로 한다. 경직된 대학 입시제도로부터 파생된 교육 부조리는 더이상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사교육비, 교액과외, 부정 입학, 부정 편입학 등의 문제는 교육의 장을 떠나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의 변혁도 중요하지만 어느 제도이든 장단점이 공존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기존의 대학 입시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부정적 측면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학생들에게 열어 놓는 것이다. 단순한 산술적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일부학생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고 참다운 개인의 정의와 사회의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실질적인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대학입시제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관료화된 제도가 문제이다. 경직된 관료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그대로 교육 행정에서도 나타난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행정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중앙 부처는 그나름대로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다른 부처의 간섭을 배제하지 못하며, 중앙에서 지방 교육 행정 단위로 권한이 이양되지 못하고, 지방 교육 행정은 그 수준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관료적 교육 행정 풍토로 인하여 교육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획일성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교육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런 모순된 어려움들은 결국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야 할 교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동적으로 교직에 임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사들의 이런 소극적 자세는 교육에 대한 사명보다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 결과적으로는 교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권을 남용 또는 오용하는 부조리를 범하게 된다.

리의 윤리적 측면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가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이 부조리로 물든 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훨씬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주인공을 양성하는 교육이 부패한다면 우리는 진보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라는 학생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차원에서도 교육 부조리는 사라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역 조선왕조 실록 (1996, CD Rom), 선조 38년 11월 26일(병신).
- 김영철 (1997),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 방안.
- 내일신문(1998. 3. 28, 4. 2, 5. 20)
- 동아일보(1998. 6. 12)
- 박태일 (1977), 과외 실태에 대한 여론조사,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 방안,
- 송태희 (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 교육 재정·경제학회 정책토론회 (1997).
- 임연기 (1977), 초·중등 학생의 과외 수업 실태와 정책 시사점,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 재정·경제학회 정책토론회 (1997).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1998), “교육개혁 정책 대안”.
- 중앙일보(1998. 5. 1)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1997), “최근의 교육비리에서 드러난 촌지, 체벌, 부당찬조금에 관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입장.”
- 한국교육신문(1998. 6. 15)
- 한종하 외 (1994), 한국 교육 문제의 재조명, 한국교육개발원.
- Abueva, Jose Veloso (1970), “The Contribution of Nepotism, Spoils, and Graft to Political Development”, in Political Corruption, ed. Arnold Heidenheimer (1970),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Klaveren, Jacob van (1970), “The Concept of Corruption” in Political Corruption, ed. Arnold Heidenheimer (1970),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